



민민의 자리에서 본다

문제의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노 영 한

(본회 전무이사)

우리나라에 돼지가 언제부터 사육되어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상당히 오래전부터 매우 귀하게 여겨져 온 것 만은 확실하다. 대개 귀한 음식은 귀한 사람에게 대접할 때 쓰이고, 제일 귀하게 쓰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신(神)이나 조상에게 제사드릴 때 사용하게 마련이다.

돼지가 삼국시대 초기부터 귀하게 여겨져 온 것을 우리는 문헌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十九年秋八月. 郊豚逸. 王使託利, 斯卑追之, 至長屋澤中得之, 以刀斷其脚. 王聞之怒曰. 祭天之牲, 豈可傷也. 遂投二人抗中殺之. 九月, 王疾病. 巫曰. 託利, 斯卑爲祟, 王使謝之, 即愈/三國史記」고구려본기, 유리왕 19년조).

고구려 유리왕 19년 가을 8월 제사에 쓰일 돼지가 도망쳤다. 왕이 탁리(託利)와 사비(斯卑)로 하여금 돼지를 쫓아가 잡아 오도록 하였다. 마침내 장옥 못 속에서 돼지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칼로 돼지의 다리를 잘랐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노해서 말하기를 「하늘에 제사드릴 제물을 어떻게 상(傷)할 수 있는가. 두 사람을 구덩이 속에 던져 죽여라.」 9월에 왕이 병들었다. 무(巫)가 말하기를 「탁리와 사비의 혼이 빌미를 잡은 것입니다.」 해서 왕이 무(巫)로 하여금 사죄케 하니 병이 치유되었다.

하늘에 제사드릴 때 돼지 한 마리를 대표해서 머리를 놓고 제사 지낸다

돼지가 하늘에 제사드릴 때 쓰이는 귀한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산에 가거나 아니면 이사하고 하늘에 제사할 때 요즈음도 돼지 한 마리는 경제적으로 벅차니까, 돼지 한마리를 대표해서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낸다. 얼마전 대한항공에서도 세계 최신의 보잉 747 여객기 앞에 돼지를 놓고 조중훈회장이 절을 하는 모습의 사진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

오늘 소개한 삼국사기의 기사는 돼지를 제물로 사용했다는 것을 후세에 알리려는 것이 아니고 유리왕의 폭력을 고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교훈으로 후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

그러나, 오늘 소개한 삼국사기의 기사는 돼지를 제물로 사용했다는 것을 후세에 알리려는 것이 아니고 유리왕의 폭력을 고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교훈으로 후세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일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리왕은 종교적인 문제를 행정력으로(권력으로) 처리한데 문제가 있었다.

칼자루를 쥐었다고 휘두르는 사람은 통쾌할 지 모르나 그 칼에 맞는 사람은 원한이 사무치게 마련이고, 그 원한은 칼을 휘두른 유리왕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인 모양이다. 유리왕이 걸린 병의 원인은 탁리와 사비의 원한이고, 병을 고치는 치유의 방법은 권력자의 사죄로 해결된다.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행정력으로 한다면 현대판 탁리와 사비는 무수히 생겨날 것

오늘날 경제문제를 행정력으로 다스리려고 생각하는 현대판 유리왕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행정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현대판 탁리와 사비는 무수히 생겨날 것이고, 저들의 원한은 어디로 갈 것이며, 누가 병을 얻게 되고, 또 그 병은 어떻게 치료가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삼국사기는 우

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만일, 유리왕이 현명치 못해서 탁리와 사비를 죽인 왕의 잘못을 지적한 무(巫)도 힘으로 죽여 버렸다면 무의 원한까지 합쳐져 왕의 병은 치유될 수 없는 중태에 이르렀을 것이고, 결국은 이 병으로 죽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상구 박사의 새로운 출발」은 많은 탁리와 사비를 낳아...

양돈업계에 각종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규제들이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탁리와 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돈산업이 병들기 때문이다.

얼마전 KBS에서 방영한 「이상구박사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프로도 이 땅에 많은 탁리와 사비를 낳게 하였다. 그 결과 KBS는 병들게 되었고 이 병은 KBS가 잘못을 사죄하는 길이 완쾌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논리는 최근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는 각종 청문회에서의 해결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할 뿐이다. **【舞豚】**